

# 竇漢卿의 『鍼經指南·標幽賦』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柳昊均 · 金容辰\*

## 關於竇漢卿『鍼經指南·標幽賦』的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柳昊均·金容辰

「標幽賦」包羅了鍼灸經絡的基本理論和子午流注鍼法·流注八法等鍼灸臨床理論，易于記頌，通過對此「標幽賦」及歷代注釋家對「標幽賦」注釋的研究，今得出如下結論：

1. 「標幽賦」中出現的竇漢卿的學術思想，是在繼承『內經』和『難經』的鍼灸學理論的基礎上，進一步發展而成的，對後世鍼灸學的發展產生了重要的影響。
2. 由於肺經的經氣由雲門穴輸出，沿經絡循行體表，於是使雲門穴具有了通經行氣的主治作用，故而不說「穴出中府」，而提出「穴出雲門」，這是竇漢卿在鍼灸理論方面的獨到之處。
3. 關於鍼灸補瀉，認為手指補瀉法的作用重於呼吸補瀉，提示了循，捫，提，按，彈，捻，搓，盤，推，內，動，搖，爪，切的十四種鍼刺補瀉手法。
4. 提出鍼刺前要觀察確認鍼具有無異常損傷，施鍼前要令鍼溫暖，施鍼時要預防折鍼和皮膚肌肉的損傷，提出左手當重而多按鍼穴，右手輕而徐徐捻轉刺入的手法，認為使用雙手進鍼為好。
5. 毫鍼可貫通經絡氣血運行的通路，與五行相應，因而可平五臟之寒熱，可調六腑之虛實，有鑷邪扶正之功，在九鍼中應用最為廣泛。
6. 提出鍼刺時要觀察本神，對於「本神」具體可看做是患者的「脈氣」和「穴氣」，從大的方面看可看做是患者的精神。
7. 提示了參照前後左右之穴而正確取穴的方法，與參照周邊經絡確定經絡的方法，並強調要遵照骨度分寸和屈伸手足關節的方法取穴才能取穴正確。
8. 關於頭面五官·咽喉頸項·胸腹部·腰背部·婦人·小兒·四肢等疾患，介紹了鍼灸治療的經驗和心得，提示了子午流注逐日按時開穴鍼法與靈龜八法等按時取穴鍼法，成為後世各種按時開穴鍼法的基礎。

Key Words: 竇漢卿, 鍼經指南, 標幽賦.

## I. 緒論

「標幽賦」는 金元時代의 著名한 鍼灸學家인 竇漢

卿이 著述한 鍼灸學의 名著로서 歌賦形式을 取하여 經絡理論, 刺鍼候氣理論, 刺鍼得氣理論, 取穴原則, 標本根結論治, 特定穴位應用, 流注八法, 子午流注鍼法, 刺鍼補瀉理論, 鍼灸治療, 鍼灸禁忌, 禁鍼穴, 禁灸穴 등의 鍼灸學의 重要한 課題들을 全般的으로 要約하여 다루고 있는 鍼灸學의 重要한 文獻이다).

\* 교신저자: 김용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42) 280-2626, king@dju.ac.kr

竇漢卿(대략 1196~1280)은 字가 漢卿이고 初名이 傑이고 後에 이름은 默으로, 字는 子聲으로 고쳤으며 廣平肥鄉(지금의 河北省 肥鄉縣) 사람이다. 그의 가장 主要한 著書로는 『鍼經指南』이 있는데 『標幽賦』는 바로 이 책에 처음으로 收錄되었으며, 그 외에도 『銅人鍼經密語』一卷을 지었으나 이미 散失되었다<sup>2)</sup>.

竇漢卿의 鍼灸學術思想은 主로 『鍼經指南』에서 反映되고 있는데 그 중 『標幽賦』는 바로 이와 같은 竇漢卿의 一生의 學術思想의 壓縮版이라고 할 수가 있다. 竇漢卿의 많은 學術思想 중 流注八穴을 특별히 중하게 여기고 鍼灸補瀉에 있어서 手指의 重要性을 強調하며 得氣를 重要視하여 得氣·候氣·調氣·行氣 등 具體的인 補瀉 手技法을 提示한 것이 가장 核心部分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가 鍼灸學에 대하여 크게 貢獻한 바가 있다면 바로 이런 部分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sup>3)</sup>.

이와 같은 重要한 學術思想들은 元明의 鍼灸學術發展에 매우 큰 影響을 미쳤는데, 그 중 『普濟方』, 『醫學綱目』, 『鍼灸聚英』, 『類經附翼』 등은 『標幽賦』의 原文을 全文 收錄하였고 『玉龍經』, 『鍼灸大全』, 『鍼灸大成』, 『鍼方六集』, 『鍼灸全書』 등은 『標幽賦』의 原文을 全文 收錄한 후에 仔細한 註釋까지 달아놓았다.

『標幽賦』에 대한 現代의 研究狀況을 보면, 中國에서는 施<sup>4)</sup>, 王<sup>5)</sup>, 吳<sup>6)</sup>, 靳<sup>7)</sup>, 谷<sup>9)</sup> 등의 註釋書 혹은 解釋書가 出版되었고 吳<sup>10)</sup>, 宋<sup>11)</sup>, 任<sup>12)</sup>, 鄭<sup>13)</sup>, 譚<sup>14)</sup>,

紀<sup>15)</sup>, 王<sup>16)</sup>, 應<sup>17)</sup> 등의 研究論文이 發表되었으며, 韓國에서도 張<sup>18)</sup> 등의 研究論文이 發表된 바 있는데, 아직도 原文 本來의 깊은 뜻을 充分히 밝혀주지 못하여 混亂스러움을 면치 못하는 部分이 많이 있고, 原文內容에 대한 各家의 相異한 註釋들에 대하여 古典的으로 研究하고 考察함에 있어서도 未洽한 點들이 많이 남아 있는 實情이다.

이에 著者는 『標幽賦』에 대하여 여러 註釋書와 解釋書 그리고 研究論文들을 참고하여 原文에 대한 懸吐와 考察을 통하여 얻은 內容을 報告하는 바이다.

## II. 研究內容

### 【題目】

標幽賦

### 【解題】

『標幽賦』는 歌賦라는 文體 形式을 取하여 微妙하고 深奧하며 理解하기 어려운 鍼灸學理論의 核心部分들을 指摘해주고 밝혀준다는 뜻이다.

### 【原文 1】 鍼刺의 基本原理

拯救之法은 妙用者鍼이니 察歲時於天道하고 定形氣於予心<sup>하야</sup> 春夏瘦而刺淺하고 秋冬肥而刺深<sup>이나라</sup>

報. 1996. 第1-6期. pp. 342-344.

11) 宋大仁. 金代杰出的鍼灸學家竇漢卿. 哈爾濱中醫. 1962. 第5卷 第6期. pp. 65-70.

12) 任路, 楊武. 標幽賦新議. 遼寧中醫雜誌. 2000. 第27卷 第1-12期. pp. 158-159.

13) 鄭美鳳. 論竇氏標幽賦의 鍼灸學術價值. 福建中醫學院學報. 1998. 第8卷 第1期. pp. 37-39.

14) 譚東連·郝麗莉. 標幽賦刺法特点述要. 中醫藥學報. 1990., 第1期, p. 56.

15) 紀曉平. 標幽賦淺談. 中國鍼灸. 1987., 第1-6期, pp. 51-53.

16) 王佐良. 標幽賦“認水木是根基”議. 上海鍼灸雜誌. 1987. 第2期. pp. 37-38.

17) 應躍明. 標幽賦學術思想溯源. 中國鍼灸. 1992. Vol.12. No.1. pp. 45-46.

18) 張坡赫, 金甲成. 標幽賦에 關한 文獻의 考察. 大韓鍼灸學會誌. 1996. Vol.13. No.1. pp. 66-91.

1) 吳富東 主編. 鍼灸醫籍選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p. 205-207.

2) 千祖望. 竇漢卿考. 中華醫史雜誌. 1955. 第7卷 第1-4期. p. 175.

3) 譚東連·郝麗莉. 標幽賦刺法特点述要. 中醫藥學報. 1990., 第1期, p. 56.

4) 施士生. 鍼灸歌賦校釋. 太原. 山西科學教育出版社. 1987.

5) 王順 主編. 鍼灸醫籍選譯. 北京. 軍事醫學科學出版社. 2002.

6) 吳富東 主編. 鍼灸醫籍選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7) 靳瑞 主編. 鍼灸醫籍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8) 靳瑞 外 1人. 經穴治療歌賦解說. 上海. 上海書局有限公司. 1990.

9) 谷世喆, 齊立潔, 任秀君. 鍼灸經絡腧穴歌訣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10) 吳富東, 單秋華, 王銳. 論竇漢卿鍼法特色. 山東中醫學院學

不窮經絡陰陽이면 多逢刺禁 하나니 既論臟腑虛實이어  
든 須向經尋하라

【考察】

本文에서는 鍼灸治療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四時의 氣와 經絡의 陰陽 그리고 臟腑의 虛實을 把握해야 함을 論述하고 있다.

鍼灸는 治療效果가 아주 좋은 治療方法의 한가지로서 그 治療效果가 經絡의 氣血을 調節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本文에서는 “察歲時”하고 “窮經絡陰陽”하며 “論臟腑虛實”하는 點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즉 鍼灸治療法을 應用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四時의 氣가 氣血에 미치는 影響을 把握해야 하고 또한 經絡의 陰陽과 臟腑의 虛實에 밝아야 한다.

【原文 2】十二經脈의 流注方向

原夫起自中焦하야 水初下漏에 太陰爲始하야 至厥陰而方終하고 穴出雲門하야 抵期門而最後니라 正經은 十二요 別絡은 走三百餘支 하나니 正側偃伏에 氣血이 有六百餘候니라 手足三陽은 手走頭而頭走足하고 手足三陰은 足走腹而胸走手 하나니 要知迎隨인면 須明逆順이니라

【考察】

本文에서는 十二經脈의 流注順序와 手足 三陰三陽經의 走行規律을 論述하고 있는데, 具體的으로는 十二經脈의 分布와 起止 그리고 流注規律을 把握해야 하고 또한 手足 三陰三陽經의 走向規律과 全身의 腧穴을 잘 把握하고 있어야 한다고 言及하고 있다. 그리고 이 基礎위에서 迎隨補瀉의 鍼法을 把握해야 鍼灸의 治療效果를 높일 수가 있다고 強調하고 있다.

本文에서 竇漢卿은 “穴出雲門 抵期門而最後”라 하여 手太陰肺經의 첫 번째 經穴인 中府穴를 말하지 않았고 두 번째 經穴인 雲門穴에서 出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鍼灸大全』에서는 “每日寅時 太陰肺脈生自中焦中府穴 出於雲門起 至少商穴止”라 하여 手太陰肺經의 經氣가 中焦에서 發生하

고 또 經穴은 中府穴에서 發生하지만 實際로 肺經이 人體의 體表로 發出하기 始作하는 자리는 雲門穴이라고 解釋하고 있다. 中府穴은 本名이 ‘府中俞’이고 別稱으로 ‘膺中俞’라고 부르는데 후에 中府穴이라고 略稱하게 된 것이다. 中府穴은 肺의 募穴이고 本經의 經氣가 모이는 곳으로서 內의 臟腑의 氣를 퍼주는 效能을 爲主로 하여 主內하고 主關하는 特性을 갖고 있고, 雲門穴은 雲字가 氣를 뜻하여 ‘氣化飛昇之門’이란 意味를 갖고 있어 主外하고 主昇하는 特性을 갖고 있다. 따라서 本文에서는 肺經의 經氣가 雲門穴에서 輸出되어 經絡에 따라 體表로 循行하게 되면서 雲門穴이 通經行氣하는 主治作用을 갖게 되는 故로 ‘穴出中府’라 하지 않고 ‘穴出雲門’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鍼灸理論에 있어서 竇漢卿의 獨步的인 見解를 보여주는 部分이다<sup>19)</sup>.

本文에서는 또 “別絡走三百餘支”와 “氣血有六百餘候”라는 概念을 提示하고 있다. “別絡走三百餘支”의 概念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十二經絡督任兩經 貫串三百六十餘穴 以同日度 并諸絡十二經奇經八脈 皇絡孫絡橫絡絲絡 未取盡名 然不過一晝夜 脈行一萬三千五百息 血行八百一十丈 一週而已矣”라 하여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의 여러 絡脈과 皇絡·孫絡·橫絡·絲絡의 概念으로 解釋을 하였고, 『鍼灸大全』에서는 “別絡者 除十五絡 又有橫絡絲絡孫絡 不知其紀 散走於三百餘支之脈也”라 하여 ‘別絡’을 크고 작은 絡脈으로 解釋을 하였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解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氣血有六百餘候”의 概念에 관하여서는 『玉龍經』에서 “背爲陽 行於陰俞 腹爲陰 行於陽俞 總三百六十餘穴 左右協助 合穴六百餘候”라고 解釋을 하였고, 『鍼灸大全』에서는 “此言經絡或正或側 或仰或伏 而氣血循行孔穴 一周於身 榮行脈中 三百餘候 衛行脈外 三百餘候”라고 解釋을 하였으며, 『鍼方六集』에서는 “此略言經穴之數”라고 解釋을 하였고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解釋을 그대로

19) 任路, 楊武. 標幽賦新議. 遼寧中醫雜誌. 2000. 第27卷 第1-12期, pp. 158-159.

따르고 있다. 各 醫家의 註釋을 比較하여 보면 비록 若干의 差異는 있었지만 “氣血有六百餘候”를 “600여 개의 經穴의 氣血 變化의 徵象”으로 보는 主張은 共通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原文 3】經脈의 氣血多少

況乎陰陽은 氣血多少爲最니 厥陰太陽은 少氣多血하고 太陰少陰은 少血多氣하며 而又氣多血少者는 少陽之分이요 氣盛血多者는 陽明之位니 先詳多少之宜하고 次察應至之氣하라

【考察】

本文에서는 六經인 厥陰·太陽·太陰·少陰·少陽·陽明經의 氣血多少의 問題에 關於하여 論하였고, 나아가서 經絡의 氣血多少에 따라 相應한 鍼感이 나타나 는 規律이 있음을 言及하였다. 各 經絡의 氣血多少에 따라 補法 또는 瀉法을 使用하는 것을 定하였다 고 하는데 一定한 臨床 參考의 價値가 있다.

【原文 4】得氣

輕滑慢而未至오 沈澀緊而已至니 既至也엔 量寒熱而留疾하고 未至者엔 據虛實而痛氣하라 氣之至也엔 若魚吞鉤鉞之浮沈하고 氣未至也엔 似閑處幽堂之深邃니 氣速至而效速하고 氣遲至而不治니라

【考察】

本文에서는 刺鍼時에 있어서 得氣의 與否와 治療效果와의 相關性에 對하여 論하였고, 아울러 候氣의 方法에 對해서도 言及하고 있다.

竇漢卿은 “輕滑慢而未來 沈澀緊而已至”라는 鍼下의 氣至 與否를 判斷하는 感覺 基準을 提示하였는데, 鍼灸 臨床에서는 지금도 이 基準을 많이 使用하고 있는 편이다. 事實 竇漢卿의 이와 같은 思想은 『內經』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靈樞·九鍼十二原』을 보면 “刺之要是 氣至而有效니라”고 하여 鍼治療에 있어서 氣가 이르러야 비로소 治療效果를 거둘 수 있다고 刺鍼治療의 要點을 提示하였고, 또한 氣至한 然後에는 그 氣가 邪氣인지 正氣인지를 반드시 分別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靈樞·終始』에서

는 이 問題에 關於하여 “邪氣來也緊而疾하고 穀氣來也徐而和하니라”고 具體的인 說明을 加하였다.

本文 중 “輕滑慢而未來 沈澀緊而已至”에 關於하여 『玉龍經』에서 刺鍼하기 前에 穴位가 沈澀而急하면 氣至한 것이니 비로서 刺鍼할 수 있다고 하였다. 『鍼灸大全』에서는 刺鍼한 후에 沈重澀滯緊實하면 精氣至한 상태라고 註釋을 하고 있다. 『鍼灸大成』과 『鍼方六集』 그리고 『鍼灸全書』는 모두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여기서 바로 다음 문장인 “既至也 量寒熱而留疾 未至者 據虛實而痛氣”를 보면 氣가 至하고 至하지 않음에 따라 留鍼하거나 拔鍼하며 또는 停鍼하여 候氣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앞뒤 문장을 함께 살펴보면 “輕滑慢而未來 沈澀緊而已至”가 刺鍼한 후의 狀況을 說明하는 것임을 確認할 수가 있다. 따라서 『玉龍經』의 註釋은 適切하지 못한 반면 『鍼灸大全』 등의 註釋은 妥當한 것이다.

그리고 本文에서 竇漢卿은 또 처음으로 “氣之至也엔 若魚吞鉤鉞之浮沈하고 氣未至也엔 似閑處幽堂之深邃니라”는 極히 形象的인 言語를 使用하여 鍼下에 得氣의 樣相을 잘 말하였는데, 즉 鍼下의 樣相이 “若魚吞鉤鉞之浮沈”이면 氣가 이른 것이고 “似閑處幽堂之深邃”면 氣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sup>20)</sup>. 이 말은 지금도 鍼灸學界에서 널리 傳해지고 있는 鍼灸學의 名言이라고 할 수가 있다. 竇漢卿은 또 得氣가 된 以後에는 寒證인지 熱證인지를 잘 가려서 각기 다른 鍼法을 써야 한다고 하였고, 得氣와 治療效果의 重要한 相關性에 對하여 “氣速至而效速 氣遲至而不治”라고 말하였다.

이상과 같은 考察을 通하여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竇漢卿의 思想인 “氣至沈緊說”과 “氣至有效說”은 『內經』의 理論을 繼承하고 發展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原文 5】毫鍼

觀夫九鍼之法<sup>권대</sup> 毫鍼이 最微하니 七星可應하고 衆

20) 任路, 楊武. 標幽賦新議. 遼寧中醫雜誌. 2000. 第27卷 第1-12期. pp. 158-159.

穴主持<sup>니라</sup> 本形은 金也<sup>라</sup> 有獨邪扶正之道<sup>하고</sup> 短長은 水也<sup>라</sup> 有決疑開滯之機<sup>하며</sup> 定刺는 象木<sup>이라</sup> 或斜或正<sup>하고</sup> 口藏은 比火<sup>라</sup> 進陽補羸<sup>하며</sup> 循機捫而可塞은 以象土<sup>니</sup> 實應五行而可知<sup>니라</sup> 然是一十六分<sup>이나</sup> 包含妙理<sup>하고</sup> 雖細擬於毫髮<sup>이나</sup> 同貫多岐<sup>하야</sup> 可平五臟之寒熱<sup>하고</sup> 能調六腑之虛實<sup>이니</sup> 拘攣閉塞은 違八邪而去矣<sup>오</sup> 寒熱痛癢은 開四關而已之<sup>니라</sup>

#### 【考察】

本文에서는 주로 五行理論을 應用하여 毫鍼의 刺鍼法의 原理에 대하여 分析하고 밝혀 주고 있다.

毫鍼은 應用的 範圍가 넓고 治療의 作用이 뛰어난 鍼具로서 “可平五臟之寒熱하고 能調六腑之虛實”하는 效能이 있다. 本文에서는 같은 毫鍼의 性質·刺鍼法·補瀉作用·治療效能 등 諸般 問題에 대하여 陰陽五行의 理論을 運用하여 詳細한 說明을 해 주었다.

本文 중 “觀夫九鍼之法 毫鍼最微 七星可應 衆穴主持”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九鍼가운데 毫鍼의 各種 微妙한 用法이 天上의 北斗七星이 돌아가고 變化하는 原理와 相通하는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고, 『鍼灸大全』에서는 九鍼은 天地와 陰陽四時의 理致에 應하여 製作된 것인데 그 중에서 일곱 번째에 該當되는 毫鍼이 가장 精微로운 用法과 作用이 있는 것으로 北斗七星과 相應하는 것이라고 說明하면서 또 毫鍼으로는 360穴을 모두 다스릴 수가 있다고 說明하고 있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각각 “此言九鍼之妙 毫鍼最精 上應七星 又爲三百六十穴之鍼”과 “此言九鍼之妙 毫鍼最精 能應七星 又爲三百六十穴之備也”라 하여 『鍼灸大成』과 같은 認識을 하고 있다. 그리고 『鍼方六集』에서는 “九鍼 鑿鍼 圓鍼 鍤鍼 鋒鍼 鈹鍼 圓利鍼 毫鍼 長鍼 大鍼也 毫鍼第七 取數於星 故上應七星”이라 하여 毫鍼은 北斗七星에서 7數를 본받은 것이므로 ‘上應七星’이라 한다고 解釋하고 있다.

本文 중 “本形金也 有獨邪扶正之道”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金者 剛健中正之性 可以去邪扶持正氣也 本形言鍼之爲物”이라고 解釋을 하였으며, 『鍼灸大全』은 “本形 言鍼也 鍼本出於金 古人以砭石 今人

以鐵代之 鑿 除也 邪氣盛 鍼能除之 扶 輔也 正氣衰 鍼能輔也”라고 解釋을 하였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解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鍼方六集』에서는 “上應七星 備五行之象 是包含妙理”라 하여 全文에 대한 總括의이고 簡略한 解釋을 하고 있다.

“短長水也 有決疑開滯之機”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毫鍼에 長短이 있어 人體의 經絡에 깊고 얇게 作用하는 것은 마치 물이 潤下의 功으로 開山穿石하는 作用과 恰似한 것이라고 解釋을 하고 있고, 『鍼灸大成』에서는 毫鍼의 長短을 河流의 長短에 比喩하였고 人體의 經絡氣血의 凝滯不通을 自然 河流의 물줄기의 凝滯不通에 比喩하였으며 나아가서 물줄기가 막힌 것은 쌓인 진흙을 더서 강물이 잘 흐르게 해야 할 것이고 氣血이 막힌 것은 막힌 經絡을 毫鍼으로 刺鍼하여 氣血로 하여금 全身으로 循環하게 하는 것이므로 毫鍼이 五行의 水에 應하는 것이라고 解釋하였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解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定刺象木 或斜或正”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鍼刺可曲 可直 可斜 可正 猶木之曲直也”라고 解釋을 하였으며, 『鍼灸大成』에서는 “木有斜正 而用鍼亦有或斜或正之不同 刺陽經者 必斜臥其鍼 母中其衛 刺陰分者 必正立其鍼 母傷其榮 故言鍼應木也”라고 解釋을 하였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成』의 解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口藏比火 進陽補羸”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口溫鍼熱 補調榮衛 母令冷熱相傷 猶火之能炎上也”라고 解釋을 하였으며, 『鍼灸大成』에서는 “口藏 以鍼含於口也 氣之溫 如火之溫也 羸 瘦也 凡欲下鍼之時 必效倣眞人口溫鍼暖 使榮衛相接 進己之陽氣 補彼之瘦弱 故言鍼應火也”라고 解釋을 하였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成』의 解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循機捫而可塞以象土”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土可以塞水 鍼可以塞病源 是以象土也”라고 解釋을 하였으며, 『鍼灸大成』에서는 “循者 用上下循之 使氣血往來也 機捫者 鍼畢以手捫閉其穴 如用土填塞之義 故言鍼應土也”라고 解釋을 하였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解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實應五行而可知”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一鍼之用 五行俱全”이라고 解釋을 하였고, 『鍼灸大成』은 “五行者 金水木火土也 此結上文 鍼能應五行之理”라고 解釋을 하였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解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原文 6】本神

凡刺者 是使本神으로 朝而後入이나 旣刺也 使本神定而氣隨나 神不朝而勿刺하고 神已定而可施하여 定脚處엔 取氣血로 爲主意하고 下手處엔 認水木이 是根基니라

【考察】

本文에서는 醫師가 刺鍼할 때에 있어서 반드시 始終一貫 患者의 精神과 氣血의 變化를 周到綿密하게 살펴보아야 함을 論하고 있다.

本文에서 竇漢卿은 醫師가 刺鍼治療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患者의 精神과 氣血의 狀態를 仔細히 살펴보아야 하고, 患者의 氣血이 安定되고 精神이 集中될 때까지 기다린 후 鍼을 놓을 수가 있으며, 아울러 刺鍼하는 部位의 氣血 運行의 狀況과 刺鍼의 角度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이와 같은 鍼灸思想은 『靈樞·本神』에서 말한 “凡刺之法은 先必本於神이라 …… 是故用鍼者는 察觀病人之態하여 以知精神魂魄之存亡得失之意라”는 法則과 一致한 것인데, 竇漢卿은 이와 같은 『內經』의 思想을 繼承한 基礎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使本神朝而後入”, “神不朝而勿刺”, “使本神定而氣隨”, “神已定而可施”라는 보다 具體的인 鍼灸原則을 提示해 주고 있다.

本文에서의 ‘本神’에 대하여서는 『鍼灸大成』에서는 ‘本神’을 鍼灸治療를 받는 “患者의 精神”으로 보고 있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 그리고 『鍼灸經絡腧穴歌訣白話解』, 『鍼灸歌賦校釋』, 『鍼灸醫籍選譯』, 『鍼灸醫籍選』, 『鍼灸醫籍選讀』 등 鍼灸學 著書들에서도 모두 이 說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와 달리 『玉龍經』에서는 ‘本神’의 ‘神’이 바로 ‘脈’이라

고 強調하면서 脈息이 穴下에 나타나고 氣가 至해야 可히 刺鍼할 수가 있고 脈息이 不至하거나 不全하면 穴下의 氣가 分散되어 모이지 않은 狀態이므로 刺鍼하는 것이 不可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는 ‘本神’을 ‘精神’으로 보지 않고 보다 더 具體的인 內容인 ‘脈氣’와 ‘穴氣’로 보고 있는 것으로 『鍼灸大成』이나 『鍼灸大成』 등과는 크게 差異를 보이는 部分이다. 여기에서 『玉龍經』을 著述한 王國瑞는 竇漢卿의 再傳弟子로서 竇漢卿의 說을 繼承한 한편 여러 가지 發揮도 한 사람이므로 『標幽賦』에 대한 그의 註釋이 師門의 心法傳授를 獨得한 것이 많지 않을까 思料된다<sup>21)</sup>. 이 외에 『鍼方六集』에서는 ‘本神’을 “本經의 元神”이라고 完全히 달리 解釋을 하고 있고, ‘本神朝’를 ‘本神朝穴’이라고 解釋을 하고 있다. 이상을 綜合하면 ‘本神’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患者의 ‘脈氣’와 ‘穴氣’이며, 크게 患者의 精神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定脚處 取氣血爲主意”에 관하여 『鍼灸大成』에서는 “言欲下鍼之時 必取陰陽氣血多少爲主”라고 解釋을 하였고, 『鍼方六集』에서는 “立定主意 氣病調氣 血病取血 調氣用迎隨補瀉 取血則出凝結之血而已 蓋甚血不去 留之於經 則成病痹故也”라고 解釋을 하였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成』의 解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玉龍經』에서는 “先占口鼻 呼吸勻者 可刺”라 하여 “定脚處 取氣血爲主意”하고자 할 때에 있어서의 具體的인 判斷方法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

“下手處 認水木是根基”에 관하여서는 『鍼灸大成』에서 ‘水木’을 母子關係의 代名詞로 보아 補母瀉子法을 잘 應用해야 하는 意味로 解釋을 하였고,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成』의 解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으며, 『玉龍經』과 『鍼方六集』에서는 『鍼灸大成』과 달리 ‘水木’을 ‘水土’라고 하였다. ‘水土’에 대하여 『玉龍經』에서는 ‘水土’를 太溪穴과 衝陽穴의 動脈으로 보면서 두 動脈의 搏動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腎과 脾의 機能이 極히 衰弱

21) 陸壽康 主編. 鍼刺手法百家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p. 406-407.

해진 狀態에 屬하므로 刺鍼 治療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解釋하고 있고, 『鍼方六集』에서는 ‘水土’를 腎臟과 脾臟으로 보면서 脾胃가 人體의 根基가 되는 것이니 脾胃 兩臟의 機能이 무너진 狀況에서는 더 이상 刺鍼 治療를 할 必要가 없다고 보다 자세하게 註釋을 하고 있는데, 두 醫書의 主張이 서로 一致함을 알 수가 있다. 이 외에 『類經附翼』에서는 ‘水木’이라 하지 않고 ‘水火’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水火’는 곧 ‘心腎’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乾坤爲體 坎離爲用”하는 易의 原理에 따라 坎離水火에 屬하는 心腎 兩臟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鍼灸經絡論穴歌訣白話解』, 『鍼灸歌賦校釋』, 『鍼灸醫籍選譯』, 『鍼灸醫籍選』, 『鍼灸醫籍選讀』 등에서는 모두 『鍼灸大全』의 說을 取하여 ‘水木’이라고 하였는데, 惟獨 王<sup>22)</sup>만이 ‘水木’이라 함은 妥當하지 못하고 『玉龍經』과 같이 ‘水土’라고 하는 것이 깊은 意義가 있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原文 7】特定穴

天地人三才也 是 可泉이 同璇璣百會하고 上中下三部也 是 大包與天樞地機니라 陽蹻陽維並督脈은 主肩背腰腿在表之病하고 陰蹻陰維任帶衝은 去心腹脇肋在裏之疑니라 二陵二蹻二交는 似續而交五大하고 兩間兩商兩井은 相依而列兩支라

【考察】

本文은 經穴이 治療效能에 있어서 節段性和 表裏性 그리고 交叉性的인 特徵이 있음을 論하였다.

經絡은 內連臟腑하고 外絡肢體하는 機能이 있는데 주로 經脈·絡脈·經別·奇經八脈 등에 의하여 縱橫交錯하는 網絡系統을 構成하고 있다. 그리고 각 經穴은 所在한 經絡과 所屬된 臟腑에 따라 그 治療作用도 각기 다르니 어떤 經穴은 裏證의 治療에 能하고 어떤 經穴은 肢體의 表證의 治療에 能하며 어떤 經穴은 經脈의 交叉와 貫通의 特性으로 말미암아 여러 經脈의 疾病을 널리 治療할 수가 있다. 本文에

서는 ‘天地人’·‘上中下’·‘在裏’·‘在表’·‘五大’ 등의 概念을 提示하고 論述함으로써 이와 같은 問題들을 具體적으로 밝혀주었고, 同時에 奇經八脈의 각각의 主治病證을 提示해 주기도 하였다.

本文 중 “二陵二蹻二交 似續而交五大”의 ‘二交’와 ‘五大’에 대하여 各 醫書의 解釋이 서로 差異를 보이고 있다. ‘二交’에 관하여 『鍼灸大全』에서는 任脈의 陰交穴과 膽經의 陽交穴로 解釋하였고,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解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으며, 『鍼方六集』에서는 三陽交와 三陰交로 보고 있는데 그 중 三陰交는 脾經의 穴임이 分明하지만 三陽交는 무슨 經의 어떤 經穴인지 確認하기가 어려우나 『鍼灸甲乙經·卷三』에 “陽交 一名別陽 一名足竅 陽維之郄 在外踝上七寸 斜屬三陽分肉間”이라 한 것에 根據하면 膽經의 陽交穴을 말하는 것으로 推測이 된다. 또 『玉龍經』에서는 ‘二交’를 交信과 交儀로 보고 있는데 交信은 腎經의 穴로서 陰蹻脈의 郄穴이기도 하고 交儀는 蠡溝穴의 別名으로 肝經의 絡穴이고 膽經으로 別走한다. 그리고 ‘五大’에 관하여 『鍼灸大全』에서는 兩手와 兩足 그리고 머리를 統稱하여 五大라고 부른다고 解釋을 하였고,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解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으며, 『鍼方六集』은 이에 관하여 註釋을 하지 않았다. 이상과 달리 『玉龍經』에서는 ‘五大’를 ‘五太’라고 하였는데 ‘五太’가 곧 太衝穴·太白穴·太溪穴·太淵穴·太陵穴이라고 解釋하고 있다.

【原文 8】取穴法

足見取穴之法은 必有分寸하니 先審自意하고 以觀肉分하야 或伸屈而得之하고 或平直而安定이니 在陽部筋骨之側은 陷下爲眞이오 在陰分郄膈之間은 動脈相應이니라 取五穴하야 用一穴而必端하고 取三經하야 使一經而可正하야 頭部與肩部詳分하고 督脈與任脈異定이니라 明標與本은 論刺深刺淺之經이오 住痛移疼은 取相交相貫之徑이니라

【考察】

本文은 鍼灸治療에 있어서 반드시 正確한 取穴

22) 王佐良. 標幽賦“認水木是根基”議. 上海鍼灸雜誌. 1987. 第2期. pp. 37-38.

方法을 마스터해야 하는 重要性을 論하였다.

本文에서는 穴位를 正確하게 取하는 여러 가지 取穴方法을 言及하면서 “取五穴用一穴而必端 取三經使一經而可正”이라는 嚴格하고 진지한 取穴原則을 提示하였고, 서른 다른 經穴이 機體에 대한 作用도 各自의 特異性을 갖고 있기 마련이므로 鍼灸治療을 할 때에는 반드시 骨度分寸·取穴의 體位·筋骨 鄰關의 標示特徵·十二經脈의 起止標本·各穴의 刺鍼 深淺·多經이 貫通하는 交會穴의 選擇 등과 같은 取穴의 基本要領을 正確하게 把握해야 바르게 穴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나아가서 治療의 效果도 保證할 수가 있다고 論述하고 있다.

本文의 核心思想이라고 할 수 있는 “取五穴用一穴而必端 取三經使一經而可正”에 관하여 『鍼灸大全』에서는 하나의 經穴 또는 하나의 經絡을 取하고자 할 때에는 前後左右의 穴들과 左右의 經絡들을 함께 參照하면서 位置를 定해야 正確하다는 뜻으로 解釋을 하였고,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主張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鍼方六集』은 이 部分에 대하여 仔細한 註釋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玉龍經』에서는 ‘五穴’을 時間에 따라 五輸穴을 取하는 것으로 보면서 文章 全體를 按時取穴에 관한 內容으로 看做하였는데, 本文의 첫 句節에서 “足見取穴之法 必有分寸”이라 하여 分寸法에 따라 取穴하는 問題를 論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으므로 『鍼灸大全』의 註釋이 보다 妥當하고 『玉龍經』의 註釋은 本意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思料된다.

本文 중 “住痛移疼 取相交相貫之徑”에 대하여 『玉龍經』에서는 痛症의 治療에는 陰經이나 陽經이 交會하는 部位의 穴이나 本經에서 表裏經으로 絡脈이 分出되는 자리의 絡穴을 取한다는 意味로 解釋을 하였고, 『鍼灸大全』에서는 痛症을 治療함에 있어 生成數에 따라 먼저 鍼을 左向으로 아홉 번 捻轉한 다음에 다시 右向으로 여섯 번 捻轉하는 左右捻轉法을 통한 陰陽交貫의 施術法과 두 經脈의 交貫을 이루어 주는 絡脈 그리고 絡穴을 取한다는 意味로 解釋을 하였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鍼

方六集』에서는 痛症 治療에는 經脈과 經脈이 左右 交貫하는 部位의 穴이나 絡脈에 의해 表裏經脈이 서로 交貫되는 자리의 絡穴을 取한다는 意味로 解釋을 하였다. 이상의 考察을 통하여 각 醫書에서 經絡의 交會穴이나 絡穴을 取하여 痛症을 治療하는 部分에 있어서는 共通의인 認識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原文 9】刺鍼原理

豈不聞臟腑病에 而求門海俞募之微에 經絡滯에 而求原別交會之道에 更窮四根三結에 依標本而刺 無不痊하고 但用八法五門에 分主客而鍼이면 無不效니라 八脈始終連八會하니 本是紀綱이오 十二經絡 十二原은 是爲樞要니 一日에 刺六十六穴之法이라야 方見幽微오 一時에 取十二經之原이라야 始知要妙니라

【考察】

本文에서는 特殊한 治療作用이 있는 經穴들과 ‘子午流注配穴方法’에 관하여 論하였다.

特殊한 治療作用이 있는 經穴중 原穴·絡穴·募穴·背俞穴·五輸穴 등은 이미 特定穴로 指定이 되었으나 門·海·交會·四根·三結·標本과 같은 內容들은 아직 깊이 있는 研究가 이루어지지 못한 狀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더욱 考察하고 整理하여 각 經穴들이 갖고 있는 特殊한 治療作用을 充分히 活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必要가 있다.

子午流注鍼法은 時間에 따라 開穴하는 刺鍼方法인데 주로 五輸穴과 原穴을 基礎로 하고 人體 生理의 週期性的인 規律과 時間醫學의 理論을 結合하여 開穴을 取하는 鍼法이다. 子午流注鍼法은 推算이 複雜하여 臨床에서 應用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近年에 와서는 時間醫學에 대하여 점차 깊은 研究와 討論이 이루어지고 있는 實情이다. 鄭<sup>23)</sup>은 이와 같은 ‘子午流注逐日按時開穴鍼法’과 ‘按時取穴法’이 모두 竇漢卿에 의하여 처음 言及되고 紹介된 鍼法이라고 主張하고 있고, 宋<sup>24)</sup>과 應<sup>25)</sup>은 「標幽賦」중의 여러

23) 鄭美鳳. 論竇氏標幽賦의 鍼灸學術價值. 福建中醫學院學報. 1998. 第8卷 第1期. pp. 37-39.

文句들이 閻廣明의 『子午流注鍼經』에 收錄된 何若愚의 「流注指微鍼賦」와 閻氏의 註釋文과 相同하거나 迥似하므로 寶漢卿이 처음 지은 內容은 아니고 위의 두 사람의 글을 引用하고 修正한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本文의 內容에 대한 各家의 註釋을 살펴보면 “豈不聞臟腑病 而求門海俞募之微”중의 ‘門海’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門海 出入之道”라고 簡略하게만 解釋을 하였고, 『鍼方六集』에서는 ‘門’을 十二經脈의 井榮俞經合穴로 解釋을 하였고 ‘海’를 髓海·氣海·血海·水穀之海인 四海로 解釋을 하였으며, 『鍼灸大全』에서는 “門海者 如章門氣海之類”라 하여 ‘門’은 章門과 같은 門자가 들어가는 穴들로 解釋을 하였고 ‘海’는 氣海와 같은 海자가 들어가는 穴들로 解釋을 하였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本文의 “經絡滯 而求原別交會之道”중의 ‘原’에 대한 見解는 여러 註釋書가 모두 一致하였는데 ‘別交會’에 관하여서는 『玉龍經』에서 “陰陰陰 謂之交 陽原陽 謂之會”라 하여 簡略하게만 解釋을 하였고, 『鍼灸大全』에서는 ‘別’은 陽別로 보았고 ‘交’는 陰交로 보았으며 ‘會’는 血·氣·脈·筋·骨·髓·臟·腑의 八會穴인 膈俞·臑中·太淵·陽陵泉·大杼·絕骨·章門·中腕으로 보고 있었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鍼方六集』에서는 ‘別’을 正經에서 別走하는 絡脈의 絡穴로 보았고 ‘交’를 두 經脈이 左右 또는 前後로 交貫하는 자리의 穴들로 보았으며 ‘會’를 二經·三經·四經·五經이 한 자리에 會하는 交會穴들로 보아 다른 醫書들과는 크게 다른 解釋을 하고 있다.

本文 중의 ‘四根三結’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素問』의 말을 引用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素問』이 아닌 『靈樞·根結』에 나오는 말이고 『素問』이나 『靈樞』에는 본 註釋文의 마지막에 나오는 手三陰經의 根結을 論한 “手太陰根於少商 溜於太淵 注於列缺

入於迎香 手少陰根於少衝 溜於神門 注於通里 入於極泉 手厥陰根於中衝 溜於太陵 注於內莖 入於天池 郤門也”라는 말이 記載된 바가 없다. 또 본 註釋文에서는 足太陽經·足陽明經·足少陽經의 根結을 각각 論한 다음에 “此謂三結四根”이라 하여 ‘四根三結’이란 바로 이와 같은 內容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提示해 주었는데 이 또한 『靈樞·根結』의 말이 아니고 王國瑞의 主張인 것이다. 그리고 『鍼灸大全』에서는 『靈樞·根結』의 根結理論을 言及하였는데 手三陰經의 根結에 관해서는 “手三陰之經未載 不敢強注”라 하여 任意로 追加 解釋을 하지 않았고, 또 ‘四根’을 耳根·鼻根·乳根·脚根으로 보고 ‘三結’을 胸結·肢結·便結로 보는 說도 있다고 言及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 『鍼方六集』에서는 여러 經脈이 四肢의 末端에 根하고 있으므로 이를 ‘四根’이라 부르고 顏面部·胸部·腹部에 結하고 있으므로 이를 ‘三結’이라 부른다고 다른 醫書들과는 크게 다르게 註釋을 하였다. 現代의 裘<sup>26)</sup>는 ‘四根三結’을 寶漢卿이 十二經脈의 根結에 대한 새로운 概括이라고 하면서 ‘四根’이라 함은 十二經이 모두 四肢의 井穴을 根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三結’이라 함은 手足陽經이 結於頭하고 手陰經이 結於胸하며 足陰經이 結於腹한다는 것인데, 特히 ‘三結’의 問題에 있어서 手足陰經이 각각 胸과 腹을 結로 삼는다는 것은 『靈樞·根結』 등의 內容과 다르나 五臟이 上部와 下部로 分布된 規律과 서로 一致한 것으로 이와 같은 理論으로 手足陰陽經의 主治規律을 概括하는 것은 重要한 意義가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本文 중 ‘八法五門’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八法’을 迎隨·轉鍼·指法·鍼頭·虛實·陰陽·提按·呼吸이라는 여덟 가지 鍼法으로 보았고 ‘五門’을 春夏秋冬과 四季月에 각각 井·榮·俞·經·合의 五輸穴를 刺鍼하는 鍼法으로 보았으며, 『鍼灸大全』에서는 이와 달리 ‘八法五門’을 時間에 따라 八脈交會穴인 公孫·內關·臨泣·外關·後溪·申脈·列缺·照海를 擇하여 各

24) 宋大仁·金代杰出的鍼灸學家寶漢卿. 哈爾濱中醫. 1962., 第5卷 第6期, pp. 65-70.

25) 應耀明. 標幽賦學術思想溯源. 中國鍼灸. 1992. Vol.12. No.1.

26) 裘沛然 陳漢平 主編. 新編中國鍼灸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5. pp. 34-36.

疾病을 治療하는 靈龜八法이나 飛騰八法으로 解釋하였으며, 『鍼灸大成』에서는 “鍼之八法 一迎隨 二轉鍼 三手指 四鍼投 五虛實 六動搖 七提按 八呼吸 身之八法 奇經八脈 公孫冲脈胃心胸 八句是也 五門者 天干配合分於五也 甲與己合 乙與庚合之類 是也”라 하여 『玉龍經』과 『鍼灸大全』의 서로 다른 註釋을 同時에 取하였고, 『鍼灸全書』는 『鍼灸大成』의 說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으며, 『鍼方六集』은 ‘八法’에 관해서는 『鍼灸大成』과 같은 見解를 갖고 있지만 ‘五門’에 관해서는 “五門 井榮俞經合 五者爲經氣所出入 若門戶焉 故曰五門”이라 하여 獨自의 註釋을 하고 있다.

本文의 “八脈始終連八會”의 ‘八會’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八會’를 腑·臟·筋·髓·血·骨·脈·氣의 八會穴인 中脘·章門·陽陵泉·陽輔·膈俞·大杼·太淵·臍中으로 解釋을 하였고, 『鍼灸大成』, 『鍼灸全書』는 『玉龍經』의 解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 奇經八脈과 八會穴의 關聯性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此八穴陰通八脈 相輔而用”이라고 註釋을 하였고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此八穴 通八脈起 止 連及八會 本是人之綱領也 如網之有綱也”라고 註釋을 하였다. 이 외에 『鍼方六集』에서는 ‘八會’가 八脈交會穴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血會·氣會·脈會·太淵·筋會·骨會·髓會·臟會·腑會라는 八會穴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強調하면서 위의 註釋이 잘못되었다고 強力하게 批判하였다.

【原文 10】補瀉法

原夫補瀉之法은 非呼吸而在手指하고 速效之功은 要交正而識本經이나 交經繆刺는 左有病而右畔取하고 瀉絡遠鍼은 頭有病而脚上鍼이나 巨刺與繆刺各異하고 微鍼與妙刺相通이나 觀部分而知經絡之虛實하고 視沈浮而辨臟腑之寒溫이나

【考察】

本文은 鍼灸治療時에 있어서의 補瀉法과 經絡의 上下左右의 關聯性에 따른 配穴方法 그리고 經絡辨證과 臟腑辨證 등 問題에 관하여 論하였다.

本文에서는 左病右取·右病左取·上病下取·下病上取·遠道取穴法 그리고 絡脈의 病을 治療하는 繆刺法과 經脈의 病을 治療하는 巨刺法 등을 言及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臨床에서 자주 쓰이는 效果의 人處方法에 屬한다. 또한 鍼의 補瀉 效果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의 關鍵은 주로 熟達된 手技와 正確한 辨證論治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強調하고 있어 寶漢卿의 鍼灸用穴에 있어서의 뛰어난 思想과 經驗 그리고 鍼灸配穴理論을 크게 發展시킨 貢獻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다.

本文 중 “原夫補瀉之法 非呼吸而在手指”에 관하여 『鍼灸大成』에서는 補瀉法은 呼吸補瀉뿐이 아니고 더욱 重要한 手指補瀉法이 있는데 “循捫提按 彈捻搓盤 推內動搖 爪切進退出攝”의 十四法으로 나누며 『金鍼賦』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註釋하였고, 『鍼方六集』에서는 補瀉法을 行할 때의 呼吸의 配合에 대하여 說明하면서 眞正한 補瀉는 呼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手指의 ‘動退推納’와 같은 움직임에 달려있다고 註釋하였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成』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一致함을 보여주고 있다. 現代의 宋<sup>27)</sup>은 呼吸補瀉는 많은 補瀉法 중의 한가지에 不過한 것으로 만약 보다 完璧하게 補瀉手技法을 運用하고자 한다면 指力을 鍛鍊하고 刺鍼手技法을 熟知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한데, 刺鍼手技法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提·挿·捻·轉과 같은 것들로서 거기에 輕·重·深·淺·短·長의 刺戟을 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本文 중 各家의 註釋이 서로 差異를 보이는 部分에 대하여 살펴보면 “觀部分而知經絡之虛實 視沈浮而辨臟腑之寒溫”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三部九候의 寒熱虛實表裏를 살펴 病症의 虛實·寒熱·表裏의 性質을 判斷한 然後에 鍼灸治療를 해야 한다는 意味로 簡略하게 註釋을 하였고, 『鍼灸大成』에서는 “觀部分而知經絡之虛實”에 관하여 鍼下의 天地人 三部의 得氣 狀況을 次例로 살피는 것을 통하여 人體內外의 虛實을 判斷한다는 意味로 註釋하

27) 宋大仁. 金代杰出的鍼灸學家寶漢卿. 哈爾濱中醫. 1962. 第5卷 第6期. pp. 65-70.

면서 아울러 寸關尺 三部의 脈을 살펴서 어떤 經絡이 虛하고 어떤 經絡이 實한 지를 判斷하는 것이라고 主張하는 說도 있다고 言及하였으며, “視沈浮而辨臟腑之寒溫”에 관하여 刺鍼後의 鍼氣의 緩急으로 臟腑의 寒熱을 判斷한다는 意味로 註釋을 하였다. 그리고 『鍼方六集』에서는 兩寸脈과 兩尺脈의 不足과 有餘의 狀況을 살펴서 ‘經滿絡虛’나 ‘絡滿經虛’를 判斷하고 脈의 浮大와 沈細를 따져서 六腑의 溫證과 五臟의 寒證을 判斷한다는 意味로 註釋을 하였다. 이 외에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原文 11】刺鍼前 處理

且夫先令鍼耀<sup>는</sup>而慮鍼損<sup>은</sup>次藏口內<sup>는</sup>而欲鍼溫<sup>이니</sup>目無外視<sup>하고</sup>手如握虎<sup>하며</sup>心無內慕<sup>하야</sup>如待貴人<sup>이나</sup>左手重而勿按<sup>은</sup>欲令氣散<sup>이오</sup>右手輕而徐入<sup>은</sup>不痛之因<sup>이나</sup>空心恐怯<sup>하고</sup>直立側而多暈<sup>이오</sup>背目沈掐<sup>하고</sup>坐臥平而沈昏<sup>이나</sup>

【考察】

本文은 刺鍼하기 前에 해야 할 準備와 注意해야 할 事項들에 대하여 論하였다.

本文에서는 刺鍼하기 前에 여러 가지 準備를 잘 하는 것은 安全하고 效果의인 鍼灸治療를 하는 重要的 前提라고 強調하고 있다. 刺鍼 前에는 우선 鍼具를 깨끗이 處理하고 鍼體에 缺損이 있는지를 檢査해야 하며, 굵주리거나 恐怖心이 있는 患者에게는 鍼을 놓지 말아야 하며, 坐位나 臥位에서 鍼을 맞는 것이 適切하고 서 있는 姿勢에서 鍼을 맞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進鍼할 때에는 患者의 視線을 막아 患者로 하여금 鍼놓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左手의 指甲으로 穴位 部位를 強하게 눌러 患者의 注意力을 分散시키면서 右手로 가볍게 刺入하면 患者의 아픔을 없앨 수 있다고 하면서 이상과 같은 方式으로 施術함으로써 暈鍼이나 斷鍼 등의 事故의 發生을 預防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言及된 寶漢卿의 鍼施術의 經驗들은 모두 鍼灸臨床의 實際에서 매우 큰 意義가 있는 것

이라고 할 수가 있다.

本文 중 各家의 註釋이 서로 差異를 보이는 部分에 대하여 살펴보면 “次藏口內 而欲鍼溫”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古人의 說을 引用하여 鍼으로 하여금 皮肉과 서로 調和를 이룸으로써 鍼과 皮肉의 損傷이나 鍼의 折斷이 發生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目的이라고 註釋을 하였고, 『鍼灸大全』에서는 經絡 穴位의 榮衛之氣와 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그 目的이라고 註釋을 하였으며, 『鍼方六集』에서는 “言敬慎鍼事如此”라 하여 簡單하게만 註釋을 하였고,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鍼을 입에 머금어 따듯하게 하는 것은 折鍼과 皮膚肌肉의 損傷을 예방하고 體內 營衛이 氣運에 順應하도록 하는 目的이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리고 “左手重而多按 欲令氣散 右手輕而徐入 不痛之因”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手法之原 先要左手在穴重按有准 右手輕捻至分寸 自不痛也”라고만 했을 뿐 左右手 配合施術의 具體의 原理에 대해서는 註釋을 하지 않았고, 『鍼灸大全』에서는 ‘左手重而多按’은 ‘令其氣散’에 그 目的이 있다고 註釋을 하였고 ‘右手輕而徐入’하는 目的에 대해서는 說明을 하지 않았으며, 『鍼方六集』에서는 ‘左手重而多按’은 “欲令本經眞氣散去 不至傷損”이 그 目的이고 ‘右手輕而徐入’은 “穴中陰血不傷 故不痛”이 그 目的이라고 보다 具體의인 註釋을 하였다. 이 외에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現代의 吳 등<sup>28)</sup>은 ‘左手重而多按’은 刺鍼하는 部位의 氣血로 하여금 흠어지게 함으로써 正氣의 損傷을 막기 위해서이고 ‘右手輕而徐入’은 右手로 鍼을 잡고 가볍게 찌르는 同時에 鍼을 輕輕히 捻轉하는 것으로 左右 兩手を 잘 配合하는 것이 要點이라고 하였다.

“空心恐怯 直立側而多暈 背目沈掐 坐臥平而沈昏”에 대하여 『玉龍經』에서는 단지 “此明用鍼規矩法式也”라고만 하였을 뿐 자세한 原理의인 解釋은

28) 吳富東, 單秋華, 王銳. 論寶漢卿鍼法特色. 山東中醫學院學報. 1996. 第1-6期. pp. 342-343.

하지 않았고, 『鍼灸大全』에서는 ‘空心恐怯’에 의해 暈鍼이 發生하는 機轉이 ‘氣血未定’에 있다고 註釋을 하였으며, 『鍼方六集』에서는 ‘空心恐怯’과 ‘姿勢不當’에 의한 暈鍼 發生의 機轉을 보다 자세하게 밝혀주었고 나아가서 “背目則神不驚 沈招則神內定 坐臥平則四體有所倚著 宜無昏悶”이라 하여 “背目沈招坐臥平”에 의한 暈鍼 預防의 機轉에 대해서도 說明을 잘 해주었다. 이 외에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原文 12】經穴의 開闔

推於十十變<sup>하야</sup> 知孔穴之開闔<sup>하고</sup> 論其五行五臟<sup>하고</sup> 察日時之旺衰<sup>하야</sup> 伏如橫弩<sup>하야</sup> 應若發機<sup>니라</sup>

【考察】

本文에서는 時間에 따라 取穴하는 問題를 論하였는데 子午流注鍼灸法과 靈龜八法 등은 逐日按時開穴하는 鍼灸方法으로서 그 날 그 時를 만난 經穴의 經氣는 旺盛한 것이므로 開穴이라고 稱하고 그 날 그 時를 만나지 못한 經穴의 經氣는 衰弱한 것으로 閉穴 또는 闔穴이라고 稱한다. 이와 같은 流注鍼灸法은 鍼灸學의 刺鍼理論중에서도 매우 獨特한 取穴配穴法이라고 할 수가 있다.

本文 중 各家의 註釋이 서로 差異를 보이는 部分에 대하여 살펴보면 “伏如橫弩 應若發機”에 대하여 『玉龍經』에서는 아무런 註釋도 하지 않았고, 『鍼灸大全』에서는 “此言用鍼之捷效 如射之發中也”라 하였고 『鍼灸大成』에서는 “此言用鍼刺穴 如弩之視正而發矢 取其捷效 如射之中的也”라 하여 두 醫書에서 한결같이 鍼治療의 效果가 화살이 과녁에 的中한 것처럼 빠르다는 것을 比喩한 말이라고 註釋을 하였다. 이와 달리 『鍼方六集』에서는 刺鍼한 후에 得氣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만히 待機하고 있어야 하고 得氣가 되었을 때는 바로 화살을 發射하듯이 迅速하게 迎隨補瀉法을 施行해야 한다고 좀더 다른 次元에서 註釋을 하였다. 이 외에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鍼方六集』의 註釋이 本文의 뜻에 보다 適合한 것으로 判斷이 된다.

【原文 13】治療法

陰交陽別<sup>은</sup> 而定血暈<sup>하고</sup> 陰矯陰維<sup>는</sup> 而下胎衣<sup>니라</sup> 痺厥偏枯<sup>는</sup> 迎隨<sup>로</sup> 俾經絡接續<sup>하고</sup> 漏崩帶下<sup>는</sup> 溫補<sup>하야</sup> 使氣血依歸<sup>니</sup> 靜以久留<sup>하야</sup> 停鍼候之<sup>하리</sup>

【考察】

本文은 주로 여러 가지 婦人科 病證의 治療에 대하여 論하였다.

鍼灸治療는 많은 婦人科 疾患의 治療에 適用이 되고 또한 좋은 效果를 보이곤 한다. 本文에서는 血暈·胞衣不下·崩漏·帶下 등 病症들을 예로 들어 鍼灸治療時의 取穴法과 補瀉方法에 대하여 깊이 있게 論述하였는데 臨床 參考의 價値가 크다고 할 수가 있다.

本文 중 各家의 註釋이 서로 差異를 보이는 部分에 대하여 살펴보면 “陰交陽別”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三陰之交與三陽別走”라 하여 ‘陰交’는 足三陰經이 交會하는 三陰交穴을 말하고 ‘陽別’은 “三陽別走의 穴”을 말한다고 註釋을 하였는데, 『鍼灸甲乙經·卷三』에서 “陽交 一名別陽 一名足窮 陽維之郄 在外踝上七寸 斜屬三陽分肉間”이라 하여 膽經의 陽交穴이 “斜屬三陽分肉間”한다는 理論을 根據로 “三陽別走의 穴”을 陽交穴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鍼灸大全』에서는 “陰交穴有二 一在臍下一寸 一在足內踝上三寸 名三陰之交也”라 하여 ‘陰交’를 任脈의 陰交와 脾經의 三陰交를 同時에 指稱하는 것으로 보았고 ‘陽別’에 대해서는 아무런 註釋도 하지 않았다. 『鍼方六集』에서는 ‘陰交’는 任脈의 陰交穴을 말하고 ‘別陽’은 足少陽膽經의 陽交穴을 말하는 것이라고 註釋을 하였는데, ‘別陽’에 대한 見解가 『玉龍經』과 서로 같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외에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 『鍼灸經絡腧穴歌訣白話解』, 『鍼灸歌賦校釋』, 『鍼灸醫籍選』, 『鍼灸醫籍選讀』 등은 ‘陰交’에 관해서는 한결같이 『鍼灸大全』의 說을 繼承하고 있었고 ‘陽別’에 관해서는 위의 文獻들과 달리 모두 手少陽三焦經의 陽池穴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여기에서 ‘陽別’을 ‘陽交’ 또는 ‘陽池’로 보는 두 가지 見解가 나오고 있는데, ‘陽交’의 別名

들을 살펴보면 『鍼灸甲乙經』은 ‘陽維郄’, 『鍼灸大成』은 ‘別陽’, 『銅人』은 ‘陽維’, 『類經圖翼』은 ‘足膠’라고 불렀으며, ‘陽池’의 별명을 살펴보면 『鍼灸甲乙經』과 『鍼灸大成』에서 모두 ‘別陽’이라고 불렀다<sup>29)</sup>. 따라서 ‘陽交’와 ‘陽池’가 모두 ‘別陽’이라는 같은 별명을 갖고 있어 본문에서 말하는 ‘陽別’이 과연 둘 중 어느 것인지를 斷言하기가 어려우며 좀 더 깊은 考察이 必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그리고 “痺厥偏枯 迎隨俾經絡接續”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風寒濕冷’으로 因한 痺證은 心包經과 三焦經의 여러 經穴들을 次例로 刺鍼하여 治療해야 한다고 註釋을 하였는데 ‘厥偏枯’ 부분에 대해서는 註釋을 하지 않았으며, 『鍼灸大全』에서는 ‘痺厥偏枯’의 病症은 반드시 接氣通經法으로 治療해야 하고 나아가서 迎隨補瀉法을 施術하여 血脈이 貫通되고 經絡이 接續되도록 해야 한다고 註釋을 하였다. 또 『鍼方六集』에서는 ‘痺厥偏枯’의 致病原因이 風寒濕邪가 經絡에 머물러 있어서 經絡의 氣血이 接續되지 않게 됨에 있으니 病이 있는 經絡을 가려서 迎而奪之하여 그 邪氣를 물리치고 隨而濟之하여 그 正氣를 補하면 病이 곧 治癒된다고 보다 分明하고 仔細하게 註釋을 하였다. 이 외에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靜以久留 停鍼候之”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產難·崩漏·淹涎 등 病症에는 留鍼을 오래하는 것이 效果의이라고 註釋을 하였고, 『鍼灸大全』에서는 “此言下鍼之后 必須靜而久停之”라 하여 簡略하게만 註釋을 하였으며, 『鍼方六集』에서는 빨리 拔鍼하면 病이 再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오래 留鍼함으로써 病邪가 깨끗이 물러가고 經絡의 氣血이 調和롭게 다스려진 다음에 拔鍼해야 한다고 보다 具體적으로 說明을 가하였다. 이 외에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 現代의 『鍼灸經絡腧穴歌訣白話解』에서는 血暈·胎衣不下·痺厥偏枯·漏崩·帶下 등 病症들에 대하여 모두 오랫동안 留鍼하여 正氣가 恢復되도록 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29) 楊甲三 主編. 腧穴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原文 14】特定穴의 主治症

必准者는 取照海하여 治喉中之閉塞하고 端的處는 用大鍾하여 治心內之呆癡나 大抵疼痛은 實이니 瀉하고 癢麻는 虛니 補라 體重節痛엔 而愈居하고 心下痞滿엔 而井主라 心脹咽痛은 鍼太衝而必除하고 脾脘胃疼은 瀉公孫而立愈하며 胸滿腹痛은 刺內關하고 脇疼肋痛은 鍼飛虎라 筋攣骨痛은 而補魂門하고 體熱勞嗽는 而瀉魄戶하며 頭風頭痛은 刺申脈與金門하고 眼癢眼痛은 瀉光明與第五하리 瀉陰郄止盜汗은 治小兒骨蒸이오 刺偏歷利小便은 醫大人水蠱라 中風은 環跳而宜刺오 虛損은 天樞而可取라

【考察】

本文은 內科 雜病에 대하여 論하였다.

本文에서는 喉痛, 癡呆, 關節疼痛, 心下痞滿, 心脹, 胸滿, 腹痛, 脇肋疼痛, 勞嗽, 頭痛, 眼疾, 盜汗, 水蠱, 中風, 虛損 등 10여 종의 病症과 그 治療法에 대하여 論述을 하였다. 治療法은 대부분 循經取穴法에 屬하고 十二經脈에서 肘膝 關節 以下에 있는 五輸穴, 原穴, 郄穴, 絡穴 등을 爲主로 使用하고 있다. 이와 같은 臟腑·器官 등 病症에 대한 取穴法은 現代에도 매우 큰 參考價値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本文에서 言及한 “疼痛實瀉 癢麻虛補”의 原則은 一般의인 경우이므로 臨床에서는 狀況에 따라서 具體적으로 分析해야 할 必要가 있다.

本文 중 各家의 註釋이 다소 差異를 보이는 部分에 대하여 살펴보면 “大抵疼痛實瀉 癢麻虛補”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麻·痒·不仁·清冷의 症狀이 보이는 病症들은 대개 虛證에 屬한 것이므로 補를 해야 하고, 疼痛의 症狀이 보이는 病症들은 대개 實證에 屬한 것이므로 瀉를 해야 한다고 註釋을 하였고, 『鍼灸大全』에서는 疼痛이 보이는 病症들은 대개 熱感이 있으므로 瀉함으로써 서늘해지게 함이 마땅하고 癢麻의 症狀이 보이는 病症들은 대개 冷感이 있으므로 補함으로써 따뜻해지게 함이 마땅하다고 註釋을 하였으며, 『鍼方六集』에서는 疼痛이 보이면 邪氣가 實한 것으로 瀉法을 쓰는 것이 마땅하고 癢麻가 보이면 正氣가 虛한 것으로 補法을 쓰는 것이 마

땅하다고 註釋을 하였는데, 여러 醫書의 註釋이 대체적으로 一致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 외에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脇疼肋痛鍼飛虎”중의 ‘飛虎穴’에 관하여 『玉龍經』은 아무런 註釋도 하지 않았고 『鍼灸大成』에서는 ‘飛虎穴’이 章門穴과 支溝穴의 두 가지 說이 共存한 狀況이라고 註釋을 하였으며, 『鍼灸大成』에서는 ‘飛虎穴’이 바로 支溝穴이라는 一說을 主張하고 있고, 『鍼方六集』에서는 “飛虎 支溝也 以虎口交叉 中指飛到處是穴 故曰飛虎 手少陽脈氣所發 少陽行於身側 其經歷屬三焦 故主脇疼肋痛 亦遠刺法也”라고 註釋을 하여 『鍼灸大成』과 같은 主張을 하고 있다. 이 외에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 現代의 『鍼灸經絡腧穴歌訣白話解』, 『鍼灸歌賦校釋』, 『鍼灸醫籍選譯』, 『鍼灸醫籍選讀』 등 鍼灸學 著書들은 ‘飛虎穴’을 한결같이 支溝穴의 別名으로 보아 『鍼灸大成』과 『鍼方六集』의 說을 繼承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原文 15】手技法

由是로 午前卯後는 太陰生而疾溫이오 離左西南은 月死朔而速冷이나라 循捫彈怒는 留吸母而堅長이오 爪下伸提는 疾呼子而噓短이나라 動退空歇은 迎奪右而瀉涼이오 推納進搓는 隨濟左而補暖이나라

【考察】

本文은 각 時間帶에 있어서의 鍼灸治療의 妥當與否와 禁忌 그리고 基本의인 補瀉의 手技와 要領에 대하여 論하였다.

本文에서는 天人相參의 整體觀念에 根據하여 日月光線의 週期的인 強弱變化에 따라 刺鍼 補瀉를 適切하게 잘 하는 方法에 관하여 論述하였는데, 午前卯後에 該當되는 辰時와 巳時에는 溫補法을 써야 하고 離左西南에 該當되는 申時와 未時에는 涼瀉法을 써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와 같은 補瀉鍼法은 『素問·八正神明論』에서 “是以天寒無刺 天溫無疑 月生無瀉 月滿無補 月郭空無治 是謂得時而調之 因天之序 盛虛之時 移光定位 正立而待之 故日月生而

瀉 是謂藏虛 月滿而補 血氣揚溢 絡有留血 命曰重實 月郭空而治 是謂亂經 陰陽相錯 眞邪不別 沈以留止 外虛內亂 淫邪乃起”라고 말한 것과 基本의으로 같아 『內經』의 理論과 方法에서 緣由된 것이 틀림이 없다. 本文에서는 또 提插, 呼吸, 捻轉, 迎隨 등의 補瀉 手技法을 提示하였는데 歌賦 文體의 限界性으로 말미암아 仔細한 說明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기타 文獻들을 함께 參照하여 研究할 必要가 있다.

本文 중 各家의 註釋이 서로 差異를 보이는 部分에 대하여 살펴보면 “循捫彈怒 留吸母而堅長”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迎隨, 轉鍼, 指法, 鍼頭, 虛實, 陰陽, 提按, 呼吸이라는 八法을 利用하여 虛則補其母하는 目的을 이루는 施術法들을 말한 것이라고 註釋을 하였고, 『鍼灸大成』에서는 ‘循捫彈怒’를 進鍼한 後에 行하는 여러 가지 補의 效果를 이룰 수 있는 手技法으로 註釋을 하였다. 그리고 『鍼方六集』에서는 ‘循捫彈怒’를 進鍼하기 前에 行하는 補의 效果를 增進하는 手技法들이라고 註釋을 하여 『鍼灸大成』과는 크게 差異를 보였는데, 특히 ‘彈怒’에 관하여 『鍼灸大成』은 ‘彈弩’라고 글자를 달리 쓰면서 刺鍼한 後에 손가락으로 鍼柄을 통겨주는 것이라고 解釋을 한 反面, 『鍼方六集』은 ‘彈’은 刺鍼하기 前에 손가락으로 穴位를 強하게 쳐주는 것이고 ‘怒’는 ‘彈’의 結果로서 그 孔穴 자리가 氣血의 貫注로 因하여 붙게 怒張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解釋하였으며, ‘堅長’의 意味에 대해서도 “肉著於鍼謂之堅 潤息而永謂之長”이라 하여 다른 醫家들보다 좀 더 具體的으로 說明을 해 주었다. 이 외에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爪下伸提 疾呼子而噓短”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迎隨, 轉鍼, 指法, 鍼頭, 虛實, 陰陽, 提按, 呼吸의 八法을 利用하여 實則瀉其子하는 目的을 이루는 施術法들을 말한 것이라고 註釋을 하였고, 『鍼灸大成』에서는 “爪下者 切而下鍼也 伸提者 施鍼輕浮豆許曰提 疾呼子者 實則瀉其子 務待寒至之后去之速 而噓且短矣”라고 註釋을 하였으며, 『鍼方六集』에서는 “以甲掐取孔穴謂之爪 鍼隨而入謂之下 引

出豆許謂之伸 鍼起肉隨謂之提 急出其鍼謂之疾 患人呵氣謂之呼 所生經穴謂之子 肉不著鍼謂之虛 聲微氣劣謂之短 言用爪下伸提疾呼子諸法 皆所以瀉實 實得其瀉 則經虛而息短矣”라 하여 註釋을 다소 달리 하고 있다. 여기에서 ‘伸提’에 관하여 『鍼灸大全』은 “伸提者 施鍼輕浮豆許曰提”라고만 解釋을 하였지만 『鍼方六集』은 “引出豆許謂之伸 鍼起肉隨謂之提”라 하여 보다 仔細한 解釋을 해 주었고, “疾呼子而嘘短”에 관하여 『鍼灸大全』은 “疾呼子者 實則瀉其子務待寒至之后 去之速 而嘘且短矣”라고 解釋하여 ‘嘘短’의 意味를 잘 理解하기가 어려웠고, 『鍼方六集』은 ‘嘘短’을 ‘虛短’이라고 글자를 달리 쓰면서 “肉不著鍼謂之虛 聲微氣劣謂之短”이라 하여 穴位에 꽂힌 鍼이 느슨해짐을 ‘虛’라 하고 治療를 통하여 患者의 목소리가 弱해지고 呼吸이 짧아짐을 ‘短’이라고 한다고 解釋한 다음에 다시 “言用爪下伸提疾呼子諸法 皆所以瀉實 實得其瀉 則經虛而息短矣”라 하여 爪, 下, 伸, 提, 疾, 呼, 子의 諸法을 施術한 후에 實邪가 瀉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結果인 “經絡의 邪氣가 물러가고 患者의 呼吸이 調로우면서 짧아지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說明해 주었다. 이 외에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動退空歇 迎奪右而瀉涼 推納進搓 隨濟左而補暖”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此明左右轉鍼補瀉 取手俯手仰法也”라 하여 總括의 으로만 註釋을 하였다.

“動退空歇 迎奪右而瀉涼”에 대하여 『鍼灸大全』에서는 “動退者 以鍼搖動而退也 如氣不行 將鍼伸提而已 空歇者 撒手而停鍼也 迎以鍼逆而迎之 奪即瀉其子也 如心之病 必瀉脾胃之子 此言欲瀉必施此法也”라고 註釋을 하였고, 『鍼方六集』에서는 “搖動其鍼謂之動 引鍼少出謂之退 不捫鍼瘡謂之空 不復用鍼謂之歇 先邪取穴謂之迎 大瀉其邪謂之奪 右旋其鍼謂之右 以上諸法 皆所以瀉實而令熱者涼也”라고 註釋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空歇’에 대하여 『鍼灸大全』은 “空歇者 撒手而停鍼也”라 하여 手技法을 行하지 않고 그대로 留鍼하는 意味로 解釋하였고 『鍼方六集』은 이와 달리 “不捫鍼瘡謂之空 不復用鍼謂之歇”

이라 하여 拔鍼한 後에 鍼孔을 막지 않는 것을 ‘空’이라 하고 鍼治療를 그만 하고 休息을 取하는 것을 ‘歇’이라고 한다고 解釋을 하였다. 또 ‘迎奪’에 대하여 『鍼灸大全』은 “迎以鍼逆而迎之 奪即瀉其子也”라고 解釋을 하였고 『鍼方六集』은 “先邪取穴謂之迎 大瀉其邪謂之奪”라 하여 多少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右’와 ‘瀉涼’에 대하여 『鍼灸大全』은 아무런 說明도 하지 않았지만 『鍼方六集』은 “右旋其鍼謂之右”라 하여 ‘右’의 意味를 分明하게 잘 밝혀 주었고 또 “以上諸法 皆所以瀉實而令熱者涼也”라 하여 ‘瀉涼’의 意味를 잘 要約해 주고 있다. 이 외에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具體的으로 “推納進搓 隨濟左而補暖”에 관하여 『鍼灸大全』에서는 “推納進者 用鍼推納而入也 搓者 猶如搓線之狀 慢慢轉鍼 勿令太緊也 隨以鍼順而隨之 濟則濟其母也 如心之病 必補肝<sup>30)</sup>之母 此言欲補必用此法也”라고 註釋을 하였고, 『鍼方六集』에서는 “持鍼力入謂之推 刺入穴分謂之納 漸次入深謂之進 拈轉其鍼謂之搓 後邪取穴謂之隨 引氣益之謂之濟 左旋其鍼謂之左 以上諸法 皆所以補虛而令寒者暖也”라고 註釋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隨濟’에 대하여 『鍼灸大全』은 “隨以鍼順而隨之 濟則濟其母也”라고 解釋을 하였고 『鍼方六集』은 “後邪取穴謂之隨 引氣益之謂之濟”라고 解釋을 하여 差異點을 보이고 있었고, 또 ‘左’와 ‘補暖’에 대하여 『鍼灸大全』은 아무런 說明도 하지 않았지만 『鍼方六集』은 “左旋其鍼謂之左”라 하여 ‘左’자의 意味를 分明하게 잘 밝혀 주었고 또 “以上諸法 皆所以補虛而令寒者暖也”라 하여 ‘補暖’의 意味를 잘 要約해 주고 있다. 이 외에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註釋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 『鍼灸大成』은 더 나아가서 “此乃遠刺寒熱之法故로 凡病熱者는 先使氣至病所하고 次微微提退豆許하야 以右旋奪之하야 得鍼下寒而止하고 凡病寒者는 先使氣至病所하고 次徐徐進鍼하야 以左旋搓提和之하야 得鍼下熱而止니라”

30) 肝: 다른 版本의 鍼灸大全에는 ‘肝膽’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고 하여 “動退空歇 迎奪右而瀉涼”과 “推納進搓 隨濟左而補暖”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鍼法에 대하여 臨床에서 좀 더 實用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보다 理解하기 쉽게 要約하여 說明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現代의 『鍼灸經絡腧穴歌訣白話解』, 『鍼灸歌賦校釋』, 『鍼灸醫籍選譯』, 『鍼灸醫籍選』, 『鍼灸醫籍選讀』 등 鍼灸學 著書들은 위의 여러 醫書들의 解釋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대체적으로 잘 따르고 있는 편이었고, 吳 등<sup>31)</sup>은 “循捫彈怒 留吸母而堅長”과 “推納進搓 隨濟左而補暖”은 正氣를 補하는 作用이 있는 複合의인 “補正鍼法”에 屬하고 “爪下伸提 疾呼子而噓短”과 “動退空歇 迎奪右而瀉涼”은 邪氣를 瀉하는 作用이 있는 複合의인 “瀉邪鍼法”에 屬한 것이라고 하였다.

「標幽賦」에서 言及한 “循捫彈怒 留吸母而堅長 爪下伸提 疾呼子而噓短 動退空歇 迎奪右而瀉涼 推納進搓 隨濟左而補暖” 등의 手指補瀉法과 『鍼經指南』에서 紹介하고 있는 “寒熱補瀉法”은 각종 刺鍼補瀉手技法의 基礎가 되는데, 예를 들면 動, 退, 搓, 進, 盤, 搖, 彈, 捻, 循, 捫, 攝, 按, 爪, 切은 후에 明·高武가 『鍼灸聚英·金鍼賦』에서 “下手十四字手法”으로 發展시켰고 明·楊繼州가 『鍼灸大成』에서 이를 다시 “十二字分次第手法及歌”로 要約함으로써 ‘十二法’으로 演變되었다<sup>32)33)</sup>. 이로 보아 竇漢卿의 補瀉手技法은 後世의 鍼灸法의 研究와 應用에 長期間 깊은 影響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다.

【原文 16】刺鍼時 注意事項

慎之<sup>하</sup>라 大患危疾은 色脈不順而莫鍼<sup>하</sup>고 寒熱風陰飢飽醉勞<sup>는</sup> 而切忌<sup>하</sup>라 望不補而晦不瀉<sup>하</sup>고 弦不奪而朔不濟<sup>하</sup>라 精其心而窮其法<sup>하</sup>야 無究艾而壞其肝<sup>하</sup>고 正其理而求其原<sup>하</sup>야 免投鍼而失其位<sup>하</sup>라

31) 吳富東, 單秋華, 王銳. 論竇漢卿鍼法特色. 山東中醫學院學報. 1996. 第1-6期. pp. 342-343.  
32) 陸壽康 主編. 鍼刺手法百家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p. 402-403.  
33) 吳富東 主編. 鍼灸醫籍選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 206.

【考察】

本文은 鍼灸治療의 注意事項과 禁忌事項 등에 대하여 論하였다.

本文에서는 ‘色脈不順’과 ‘寒熱風陰’ 그리고 ‘飢飽醉勞’ 등 素因을 刺鍼을 禁忌해야 하는 事項들로 言及하고 있는데, 이는 韓醫學의 整體觀念과 辨證論治思想을 鍼灸 臨床에 具體的으로 活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望不補而晦不瀉 弦不奪而朔不濟”는 原文 15의 “午前卯後 太陰生而疾溫 離左西南 月死朔而速冷”과 서로 聯關되는 內容으로서 時間帶에 따른 鍼灸의 禁忌事項을 言及하고 있는 것이다. 이 問題에 關하여 『素問·八正神明論』에서는 “月郭滿 則血氣實 肌肉堅 月郭空 則肌肉減 經絡虛 衛氣去 形獨居 是以因天時而調血氣也 是以天寒無刺 天溫無疑 月生無瀉 月滿無補 月郭空無治 是謂得時而調之 …… 故曰月生而瀉 是謂臟虛 月滿而補 血氣揚溢 絡有留血 命曰重實 月郭空而治 是謂亂經 陰陽相錯 眞邪不別 沈以留止 外虛內亂”이라 하여 望日, 晦日, 弦日, 朔日의 時間帶에 應하여 일어나는 人體 經絡血氣의 變化의 特徵을 根據로 하여 補와 瀉를 해야 한다고 仔細하게 밝혀 주고 있다.

【原文 17】禁灸穴 禁刺穴

避灸處而加四肢<sup>는</sup> 四十有九<sup>로</sup> 禁刺處而除六<sup>은</sup> 愈<sup>는</sup> 二十有二<sup>니라</sup>

【考察】

本文은 禁灸穴과 禁鍼穴에 대하여 論하였다.

本文에서는 禁灸穴은 49개가 있고 禁鍼穴은 여섯 개의 背俞穴을 除外하고도 22개가 있다고 하였는데, 禁灸穴 49개에 關하여 『玉龍經』에서는 “忌鍼灸之穴 見鍼經第四卷”이라 하여 『鍼經』에 記載된 것을 基準으로 한다고 簡略하게만 註釋을 하였고, 『鍼灸大全』에서는 “禁灸之穴四十五 更和四肢之井共四十九也”라고 註釋을 하여 具體的인 穴名을 提示하지 않았으나 다시 “俱載於前”이라 하였으므로 『鍼灸大全』의 앞 부분 「禁灸穴歌」<sup>34)</sup>에 나오는 45穴

34) 鍼灸大全·禁灸穴歌 : 禁灸之穴四十五, 承光啞門及風府,

인 “承光, 啞門, 風府, 天柱, 素膠, 臨泣, 精明, 攢竹, 迎香, 禾膠, 顛膠, 絲竹空, 頭維, 下關, 脊中, 肩井, 心俞, 白環俞, 天樞, 人迎, 乳中, 周榮, 淵液, 鳩尾, 腹哀, 少商, 魚際, 經渠, 天府, 中衝, 陽關, 陽池, 地五會, 隱白, 漏谷, 陰陵泉, 條口, 犢鼻, 竅陰, 伏兔, 髀關, 委中, 殷門, 申脈, 承扶”가 바로 “禁灸之穴四十五”에 該當됨을 알 수가 있고 “四肢之井”에 該當되는 나머지 4개의 禁灸穴은 確認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鍼方六集』에서는 禁灸穴이 49개가 아닌 46개라고 하면서 具體적으로 그 禁灸穴들의 이름이 “中心, 中肺, 中肝, 中脾, 中腎, 中膀胱, 中膽, 中膈, 附上, 陰股, 面中, 客主人, 腦戶, 膝髌, 郄中, 膺中, 氣街, 太淵血, 缺盆, 乳房, 乳中, 雲門, 臍中, 少陰血, 鳩尾, 神庭, 顛息, 左角, 人迎, 足下中脈, 石門, 伏免, 會陰, 脊髓, 承筋, 肘內陷, 然谷, 橫骨, 青靈, 五里, 匪上陷, 面承泣, 三陽絡, 關節液出, 腋脇內陷, 孕婦三陰交”라고 提示해 주어 다른 醫書들과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었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說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禁灸穴 22개에 관하여서는 『玉龍經』에서 “忌鍼灸之穴 見鍼經第四卷”이라 하여 『鍼經』에 記載된 것을 基準으로 한다고 簡略하게만 註釋을 하였고, 『鍼灸大成』에서는 “禁鍼灸之穴二十二 外除六腑之腧也”라고 註釋을 하여 具體적인 穴名을 提示하지 않았으나 다시 “俱載於前”이라 하였으므로 『鍼灸大全』의 앞 부분 「禁鍼灸歌」<sup>35)</sup>에 나오는 “腦戶, 凶會, 神庭, 絡却, 玉枕, 角孫, 顛息, 承泣, 承靈, 神道, 靈臺, 臍中, 水分, 神闕, 會陰, 橫骨, 氣衝, 手五里, 箕門, 承筋, 青靈, 三陽絡”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鍼方六集』에서는 禁灸穴을 22개가 아닌 32개로 言及하면서 具體적으로 禁灸穴들의 이름이 “頭維, 承光, 腦戶, 下關, 殷門, 絲竹空, 人迎, 承泣, 脊中, 乳中, 氣街, 白環俞, 淵液, 經渠, 鳩尾, 四白, 陽關, 石門,(女子禁) 天府, 伏免, 瘰脈, 啞門, 風府, 地五會, 素膠, 精明, 迎香, 禾膠, 顛膠, 心俞, 氣衝, 陰市”라고 提示해주어 기타 醫書와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었으며, 『鍼灸大成』과 『鍼灸全書』는 『鍼灸大全』의 說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데 現代의 鍼灸學에서는 禁灸穴과 禁鍼穴에 대하여 本文에서와 같이 이렇게 絶對적인 것으로는 보지 않았고, 또 위에서 말한 일부 禁灸穴과 일부 禁鍼穴에도 뜸을 뜨거나 鍼을 놓을 수가 있다고 主張하고 있으며, 現代鍼灸의 臨床實際에서도 禁灸穴과 禁鍼穴의 概念이 많이 바뀌고 있는 實情이어서 本文의 內容에 너무 엄매일 필요는 없다고 思料된다<sup>36)37)</sup>.

以上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註釋書 사이에는 여러 가지 差異點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重要的 것은 “禁刺處而除六俞”중의 ‘六俞’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問題이다. ‘六俞’에 관하여 『玉龍經』에서는 “忌鍼灸之穴 見鍼經第四卷”이라고 하여 『鍼經』을 基準으로 해야 한다고만 하였고, 『鍼灸大成』에서는 ‘六腑之腧’라고 註釋을 하여 ‘六俞’를 六腑의 背俞穴인 大腸俞, 小腸俞, 膽俞, 胃俞, 膀胱俞, 三焦俞로 解釋을 하였으며, 『鍼方六集』에서는 ‘六俞’에 관하여 아무런 說明도 하지 않고 단지 “頭維裏 承光裏 腦戶裏 下關裏 殷門裏 絲竹空裏 人迎裏 承泣裏 脊中裏 乳中裏 氣街裏 白環俞裏 淵液裏 經渠裏 鳩尾裏 四白裏 陽關裏 石門(女子禁)裏 天府裏 伏免裏 瘰脈裏 啞門裏 風府裏 地五會裏 素膠裏 精明裏 迎香裏 禾膠裏 顛膠裏 心俞裏 氣衝裏 陰市”라 하여 禁鍼穴 이름들만 羅列하였는데, 그 중에 背俞穴에 해당되는 穴이 오직 心俞穴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 原文 內容에 符合되지 않고 많이 벗어난 것으로 判斷된다. 現代의 『鍼灸經絡腧穴歌訣白話解』,

天柱素膠臨泣上, 精明攢竹迎香數. 禾膠顛膠絲竹空, 頭維下關與脊中, 肩井心俞白環俞, 天樞人迎共乳中. 周榮淵液并鳩尾, 腹哀少商魚際位, 經渠天府及中衝, 陽關陽池地五會. 隱白漏谷陰陵泉, 條口犢鼻竅陰市, 伏兔髀關委中穴, 殷門申脈扶承忌.

35) 鍼灸大全·禁鍼灸歌: 禁鍼灸道要先明, 腦戶凶會及神庭. 絡却玉枕角孫穴, 顛息承泣隨承靈. 神道靈臺臍中忌, 水分神闕并會陰. 橫骨氣衝手五里, 箕門承筋及青靈. 更加臂上三陽絡, 二十二穴不可鍼. 孕婦不宜鍼合谷, 三陰交內亦通倫. 石門鍼灸應須忌, 女子終身無妊娠. 外有雲門并鳩尾, 缺盆客主人莫深. 肩井深時人悶倒, 三里急補人還平.

36) 邱茂良 主編. 鍼灸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37) 楊甲三 主編. 腧穴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鍼灸歌賦校釋』, 『鍼灸醫籍選譯』, 『鍼灸醫籍選』, 『鍼灸醫籍選讀』 등 鍼灸學 著書들에서는 ‘六俞’에 관하여 『鍼灸大全』을 비롯한 여러 醫書들의 說을 전혀 따르지 않았고 모두 竇漢卿이 말하는 “禁刺處而除六俞”가 『靈樞·背俞』의 “肺俞在三焦之間 心俞在五焦之間 膈俞在七焦之間 肝俞在九焦之間 脾俞在十一焦之間 腎俞在十四焦之間 …… 灸之則可 刺之則不可”에서 禁鍼穴이라고 言及하고 있는 肺俞·心俞·膈俞·肝俞·脾俞·腎俞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는데 이 說이 보다 妥當한 것이라고 思料된다. 사실 現代 鍼灸學에서는 背俞穴을 禁鍼穴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38) 現代 鍼灸 臨床에서는 이와 같은 說을 다만 參考事項으로만 삼아야 한다고 思料된다.

【原文 18】歷代鍼灸名醫

抑又聞高皇이 抱疾未瘥에 李氏 刺巨闕而得甦하고 太子 暴死爲厥에 越人이 鍼維會而復醒하고 肩井曲池는 甄權이 刺臂痛而復射하고 懸鐘環跳는 華佗는 刺臂足而立行하고 秋夫는 鍼腰俞而免沈疴하고 王纂은 鍼交俞而妖精立出하고 刺肝俞與命門하야 使瞽士로 視秋毫之末하고 取少陽與交別하야 俾聾夫로 聽夏螭之聲이라하니라

【考察】

本文은 李氏, 秦越人, 甄權, 華佗, 徐秋夫, 王纂 등 古代的 鍼灸 大家들이 危重病과 難治病을 治療한 鍼灸 醫案들을 列擧하여 鍼灸의 疾病 治療에 있어서의 神奇한 效能을 說明해 주면서 이로써 後學들이 보다 깊고 精誠스러운 마음으로 깊고 精微로운 鍼灸學의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激勵해주고 있다.

本文 중 各家의 註釋이 서로 差異를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取少陽與交別 俾聾夫聽夏螭之聲”에 나오는 ‘少陽’과 ‘交別’에 관하여 『玉龍經』, 『鍼灸大全』, 『鍼灸大成』, 『鍼灸全書』는 아무런 註釋도 하지 않았고, 『鍼方六集』에서는 ‘少陽’은 手足少陽之會인 翳風穴을 말하는 것이고 ‘交別’은 手厥陰

心包經이 手少陽三焦經으로 交하여 들어가는 ‘內關穴’과 手少陽三焦經에서 手厥陰心包經으로 別하여 나가는 ‘外關穴’ 그리고 足厥陰肝經에서 足少陽膽經으로 交하여 들어가는 ‘蠡溝穴’과 足少陽膽經에서 足厥陰肝經別로 別하여 나가는 ‘光明穴’인 4개의 穴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現代의 『鍼灸經絡腧穴歌訣白話解』, 『鍼灸歌賦校釋』, 『鍼灸醫籍選譯』 등 鍼灸學 著書들에서는 『宋史』에 記載되어 있는 “宋王纂鍼少陽交別二穴 俾聾夫聽夏螭之聲 少陽即聽會穴 交別即陽池穴”이라는 內容 등을 根據로 ‘少陽’은 곧 足少陽膽經의 ‘聽會穴’을 말하고 ‘交別’은 곧 手少陽三焦經의 ‘陽池穴’을 말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으며, 『鍼灸醫籍選』과 『鍼灸醫籍選讀』 등의 鍼灸學 著書들은 이 部分 內容에 관하여 아무 見解도 提示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상에서 言及되고 있는 翳風穴, 內關穴, 外關穴, 蠡溝穴, 光明穴 그리고 聽會穴, 陽池穴은 手足少陽經과 手足厥陰經의 經穴로서 耳聾에 대하여 모두 크고 작은 治療效果가 있는 經穴들이다. 그런데 과연 어떤 說이 『標幽賦』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本意와 一致한 것인지에 대하여 좀더 考察을 할 必要가 있다.

그 중 ‘交別’에 관하여 經穴의 別名에 ‘交別’과 聯關性이 있는 穴들을 찾아보면 『鍼灸甲乙經』에서 手少陽三焦經의 陽池穴의 別名이 ‘別陽’이라고 하였고 『鍼灸大成』에서는 足少陽膽經의 陽交穴의 別名이 ‘別陽’이라고 하였는데 이 두 개의 經穴이 ‘交別’과 聯關性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鍼灸大成·十二經治症主客原絡』을 보면 「三焦主包絡客」에서 “三焦爲病耳中聾裏 喉痹咽乾目腫紅裏 耳後肘疼并出汗裏 脊間心後痛相從裏 肩背風生連膊肘裏 大便堅閉及遺糞裏 前病治之何穴愈裏 陽池內關法理同 可刺手少陽三焦經原裏 復刺手厥陰心包經絡”이라 하여 手少陽三焦經에 病이 생기면 耳聾 등 症狀이 나타나니 먼저 手少陽三焦經의 原穴인 陽池穴에 먼저 刺鍼하고 다음에 表裏經脈인 手厥陰心包經의 絡穴인 內關穴에 刺鍼하면 治療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膽經主客’에서는 “膽經之穴何病主 胸脇肋疼足不舉裏 面體

38) 邱茂良 主編. 鍼灸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39) 楊甲三 主編. 腧穴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不澤頭目疼裏 缺盆腫汗如雨裏 頸項癭癭似鐵裏 虐生寒熱連骨髓 以上病症欲除之裏 須向丘墟蠡溝取 可刺足少陽膽頸原裏 復刺足厥陰肝經絡”이라 하여 足少陽膽經에 病이 생기면 胸脇肋疼 등의 症狀이 나타나니 足少陽膽經의 原穴인 丘墟穴에 먼저 刺鍼 하고 然後에 表裏經脈인 足厥陰肝經의 絡穴인 蠡溝穴을 刺鍼하면 治療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같은 少陽經이지만 手少陽三焦經이 病들어 나타나는 主治으로는 耳聾을 言及했지만 足少陽膽經이 病들어 나타나는 症狀에는 耳聾을 言及하지 않았다. 따라서 耳聾은 膽經보다도 三焦經의 病症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나아가서 刺鍼 治療를 하더라도 足少陽膽經보다도 手少陽三焦經의 經穴이 더 效果의이지 않을까 思料되므로 本文의 “取少陽與交別 俾聾夫聽夏竈之聲”에서 말하는 ‘交別’은 三焦經의 陽池穴일 可能性이 크고 膽經의 陽交穴일 可能性은 적다고 判斷된다.

【原文 19】初學者에게 勸함

嗟夫라 去聖逾遠<sup>일세</sup> 此道漸墜<sup>하야</sup> 或不得意而散其學<sup>하고</sup> 或衍其能而犯禁忌<sup>로다</sup> 愚庸智淺<sup>하야</sup> 難契於玄言<sup>하니</sup> 至道淵深<sup>이라</sup> 得之者<sup>가</sup> 有幾<sup>오</sup> 偶述斯言<sup>하니</sup> 不敢示諸明達者焉<sup>이나</sup> 庶幾乎童蒙之心啓<sup>일가하노라</sup>

【考察】

本文은 『標幽賦』를 著述한 宗旨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다.

本文에서 著者는 鍼灸學 學術이 점차 衰退하고 있는 점에 대한 안타까운 心情을 나타내면서 鍼灸學 發展에 障礙가 되는 原因이 바로 “不得意而散其學”하는 것과 “衍(愆)其能而犯禁忌”하는 것이라고 分析하였으며, 나아가서 鍼灸學 理論이 워낙 深奧함으로 인하여 鍼灸理論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標幽賦』를 지어 微妙하고 深奧하며 理解하기 어려운 鍼灸學理論의 核心 部分들을 指摘하고 밝혀줌으로써 初學者들의 배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혀두고 있다.

## IV. 結 論

鍼灸經絡의 基本理論으로부터 子午流注鍼法 流注八法 등의 鍼灸臨床理論을 망라하여 鍼灸學의 주요 내용을 쉽게 暗記하도록 만든 『標幽賦』에 대하여 歷代 注釋家의 注釋을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標幽賦』에 나타난 竇漢卿의 學術思想은 『內經』과 『難經』의 鍼灸學 理論을 繼承한 基礎위에 한 걸음 더 發展시킨 것으로 後世의 鍼灸學 發展에 重要한 影響을 미쳤다.
2. 肺經의 經氣가 雲門穴에서 輸出되어 經絡에 따라 體表로 循行하게 되면서 雲門穴이 通經行氣하는 主治作用을 갖게 되는 故로 ‘穴出中府’라 하지 않고 ‘穴出雲門’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鍼灸理論에 있어서 竇漢卿의 獨步의 見解를 보여주는 部分이라 할 수가 있다
3. 鍼灸補瀉에 있어서 呼吸補瀉보다 手指補瀉法이 效果가 뛰어나다고 하면서 循, 捫, 提, 按, 彈, 捻, 搓, 盤, 推, 內, 動, 搖, 爪, 切의 14가지 方法을 手技法을 提示하였다.
4. 鍼刺하기 전에 鍼을 잘 살펴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鍼을 따듯하게 하여 折鍼과 皮膚肌肉의 損傷을 예방하고, 左手로 鍼봉을 부위를 문지르고 右手로 가볍게 침을 捻轉하면서 刺入하는 手技法을 언급하여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5. 毫鍼은 經絡의 氣血運行의 道路를 貫通하는 것으로 五行과 相應하여, 五臟의 寒熱을 바로잡고 六腑의 虛實을 다스려 錮邪扶正하는 效果가 있어 九鍼가운데 가장 많이 活用되는 鍼이라고 하였다.
6. 刺鍼할 때 本神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하였는데 ‘本神’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患者의 ‘脈氣’와 ‘穴氣’이며, 크게 患者의 精神이라고 할 수 있겠다.
7. 前後左右의 穴들과 비교하여 正確한 取穴하고, 周邊의 經絡들을 함께 參照하여 經絡의 位置

를定하는방법을提示하였고,아울러骨度를알고手足을屈伸하여取穴하여야만正確한자리를잡을수있다고하였다.

8. 頭面五官·咽喉頸項·胸腹部·腰背部·婦人·小兒·四肢 등의 疾患에 대한 鍼灸治療의 經驗과 心得을 紹介하였고, 子午流注逐日按時開穴鍼法과 靈龜八法 등의 按時取穴鍼法을 言及하여 後世의 各種 按時開穴鍼法의 길잡이가 되었다.

## 參考文獻

1. 谷世喆,齊立潔,任秀君. 鍼灸經絡腧穴歌訣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2. 邱茂良 主編. 鍼灸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3. 裘沛然 陳漢平 主編. 新編中國鍼灸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5.
4. 靳瑞 外 1人. 經穴治療歌賦解說. 上海, 上海書局有限公司. 1990.
5. 靳瑞 主編. 鍼灸醫籍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6. 紀曉平. 標幽賦淺談. 中國鍼灸. 1987.
7. 譚東連·郝麗莉. 標幽賦刺法特点述要. 中醫藥學報. 1990.
8. 宋大仁. 金代杰出的鍼灸學家竇漢卿. 哈爾濱中醫. 1962.
9. 施士生. 鍼灸歌賦校釋. 太原, 山西科學教育出版社. 1987.
10. 楊甲三 主編. 腧穴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11. 吳富東 主編. 鍼灸醫籍選讀.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12. 吳富東,單秋華,王銳. 論竇漢卿鍼法特色. 山東中醫學院學報. 1996.
13. 王順 主編. 鍼灸醫籍選譯. 北京, 軍事醫學科學出版社. 2002.
14. 王佐良. 『標幽賦』“認水木是根基”議. 上海鍼灸雜誌. 1987.
15. 陸壽康 主編. 鍼刺手法百家集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16. 應躍明. 標幽賦學術思想溯源. 中國鍼灸. 1992.
17. 任路,楊武. 『標幽賦』新議. 遼寧中醫雜誌. 2000.
18. 張峻赫,金甲成. 標幽賦에 關한 文獻의 考察. 大韓鍼灸學會誌. 1996.
19. 鄭美鳳. 論竇氏『標幽賦』의 鍼灸學術價值. 福建中醫學院學報. 1998.
20. 千祖望. 竇漢卿考. 中華醫史雜誌. 1955.
21.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22. 黃龍祥 主編.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